

제주의 숲, 꽃자왈의 인식과 이용에 대한 연구

정 광 중¹⁾

A Study on Perception and Use of Gotjawal in Jeju Island

Jeong, Kwang-Joong¹⁾

요 약 : 본 연구는 제주도 자연 생태계의 대명사적인 꽃자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과 이용실태를 단계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꽃자왈은 제주도의 허파이자 지하수의 함양공간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제주도의 소중한 숲이자, 희귀한 자연자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 꽃자왈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꽃자왈의 이용은 과거 선조들의 이용하는 방식인 1차적 이용(소극적 이용)과 2차적 이용(적극적 이용), 그리고 현대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인 3차적 이용(파괴적 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꽃자왈의 이용방식은 2차적 이용의 적극적 이용이나 3차적 이용의 파괴적 이용보다는 1차적 이용의 소극적 이용이어야만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주요어 : 꽃자왈, 자연자원, 소극적 이용, 적극적 이용, 파괴적 이용

Abstract : This study intends to consider Jeju island residents' perception and use of Gotjawal which is a byword for the natural ecology in Jeju island. Recently, Gotjawal has been significantly emphasized as an air cleaner as well as a groundwater recharging space in Jeju island, and evaluated as a place with a high conservative value as a precious forest as well as a very important natural resource in Jeju island. This study provides the discussion focusing on the status of Jeju island residents' use of Gotjawal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perception, and as a result, the use of Gotjawal can be classified into the 1st use (Passive use) and the 2nd use (Active use) which were mainly used by the ancestors in the past and the 3rd use (Destructive use) which is mainly used by the current gener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continuou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Gotjawal will be only possible through the 1st use (Passive use) rather than the 2nd use (Active use) or the 3rd use (Destructive use).

Key words: *Gotjawal, Natural Resource, Passive Use, Active Use, Destructive Use*

1. 서 론

본고의 목적은 과거 전통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이 꽃자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인식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꽃자왈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제주도민들의 꽃자왈에 대한 인식 정도는 곧 꽃자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어떤 방식

으로 이용해 왔는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제주도민들이 전통사회의 삶 속에서 꽃자왈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정광중, 2004: 41-65). 그러나 그것은 본고에서 추구하는 꽃자왈의 단계별 이용형태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임팩트(impact)를 전제한 논의와는 다른 것이었다.

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회과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ongkj@jejunu.ac.kr

제주도민들은 마을을 설촌하는 과정에서부터 꽃자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이든 의식적이든 꽃자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고를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꽃자왈에 대한 인식정도는 꽃자왈을 끼고 있는 마을이나 주변에 위치하는 마을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마을 즉 꽃자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차이점은 꽃자왈의 위치와 마을의 위치 또는 주거지와의 물리적 거리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꽃자왈과 주거지의 위치적 관계나 제주도민들이 이동해야만 하는 물리적 거리,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꽃자왈의 활용도를 배경에 두고 꽃자왈의 이용실태를 1차적 이용(소극적 이용), 2차적 이용(적극적 이용) 및 3차적 이용(파괴적 이용)으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목적은 꽃자왈의 인식정도에 따른 이용 역사를 밝히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꽃자왈의 개념과 분포가 지리학계에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꽃자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고문헌과 고지도를 개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나아가 현지조사와 주민들로부터 청취 조사한 내용을 서술적 기법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2. 꽃자왈의 개념과 분포

1) 꽃자왈의 개념

먼저 꽃자왈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자.¹⁾ 꽃자왈이란 용어는 제주도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

어이다(제주도, 1997: 156).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꽃자왈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는 없다. 이어서 송시태·고기원·윤선의 공동연구(1996: 68)에서 꽃자왈의 개념은 구체화되어 나타나며, 2000년 송시태의 학위논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개념의 정착과 함께 보편화하기에 이르렀다.

꽃자왈은 표준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제주어로서,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제주도에서 발행한 『제주어사전(濟州語辭典)』(개정증보판)에 따르면,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정의하고 있으며(제주도, 2009: 83), 흔히 축약해서 사용하는 ‘자왈’도 똑같은 의미로 풀이해 놓고 있다(제주도, 2009: 729-730). 제주도민들은 흔히 꽃자왈을 ‘꽃’과 ‘자왈’의 두 용어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같은 문헌에서 ‘꽃’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숲’ 또는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고지’와 같다고 풀이해 놓고 있다(제주도, 2009: 83).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꽃자왈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목경관(草木景觀)과 수목경관(樹木景觀)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다 진전된 꽃자왈의 개념은 지리학 분야의 송성대가 제시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송성대는 “꽃자왈은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한 꽃(洞藪, 磊林)과 토심(土深)이 얇은 황무지인 자왈(磊野)이 결합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송성대, 2000: 93-101). 이처럼 지리학적 측면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않았지만, 꽃자왈 지대에 나타나는 식생과 토양이라는 두 가지 자연경관 요소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제주도의 지질여행』에서는 꽃자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꽃자왈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박기화 외, 2006).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지표의 70%는 아아 용암(aa lava)에 의해 형성된 암석으로 덮

여 있으며, 이처럼 아아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에는 두꺼운 클링커 층(clinker layer)이 형성된다. 이 클링커 층이 지표에 노출된 지역은 빗물의 투수가 잘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꽃자왈이라 부른다. 이런 클링커 층은 지하에도 많이 분포하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지하수가 들어 있다”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박기화 외, 2006: 43). 이처럼 지질적 특성을 전제로 한 꽃자왈의 설명에서는 지표층을 형성하는 구성 물질(암석)과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돋보인다.

꽃자왈의 개념을 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연구자는 위에서 지적한 송시태·고기원·윤선이다. 이들은 “꽃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잡석과 잡목 및 가시덩굴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기 곤란한 쓸모없는 토지(지대)를 지칭하는 말”이라 이해하면서, 꽃자왈 지대의 지질적 특성을 더욱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꽃자왈 지대의 잡석들은 대부분 자갈에서부터 암괴 크기에 이르는 스킨리아(scoria), 화산탄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규모의 용암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잡석들은 다공질이고 매우 각지지(very angular) 않으며 부분적으로는 로피(ropy) 또는 꼬인(twisted) 구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꽃자왈 지대는 스킨리아류(scoria flow) 또는 화성쇄설류(pyroclastic flow)에 의해 운반된 자갈과 더불어 화구로부터 방출된 화산탄 및 화산자갈이 뒤섞여 쌓인 각력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송시태·고기원·윤선, 1996: 68). 나아가 송시태는 제주도에 속칭 꽃자왈이라 부르는 지대는 암괴상 아아 용암류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아아 용암류라는 용어 대신에 ‘꽃자왈 용암류(gotjawal lava flo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송시태, 2000: 18).

이처럼 3인이 내린 꽃자왈의 개념 정의는 지질학의 심층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했던 사전적인 의미나 지질적 특성만을 전제한 개념 정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문적·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된 해석으로 받

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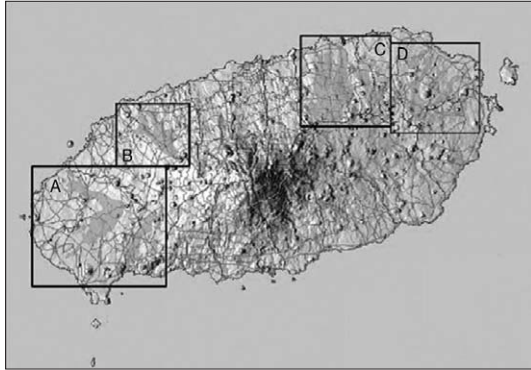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꽃자왈 지역의 개발 반대와 보존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배경을 발판삼아, 꽃자왈 보전·관리 조례(안)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조례(안)에서는 꽃자왈을 ‘용암의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얽혀 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효철, 2011: 92, 재인용). 또한 2007년에 설립된 꽃자왈공유화재단에서는 꽃자왈을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점성이 큰 암괴상 용암들이 널려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식생이 양호하고 하부는 수십 겹의 용암층이 시루떡처럼 쌓여 있어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꽃자왈공유화재단, 2012). 이들 개념 정의에서는 지질학적·식물학적 특성을 전제하면서도 생태적 중요성을 가미하여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꽃자왈의 분포

그렇다면, 이상에서 정리한 꽃자왈의 개념과 특성을 전제할 때 제주도 내에서 꽃자왈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검토해 보자. <그림 1>은 제주도내의 꽃자왈 분포도이다(송시태, 2000: 20).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분포범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로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꽃자왈은 주로 중산간 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발 20~800m 사이의 해안지역을 비롯한 중산간 지역과 산간지역까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해발 600m 이상의 산간지역에서는 분포범위가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 큼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송시태, 2000: 20). 그리고 꽃자왈의 차지하는 면적은 총 110km²이며, 이중 제주시에는 52km², 서귀포시에 58km²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꽃자왈공유화재단, 2012).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꽃자왈을 지역적으로 보면, 크게 구좌-성산꽃자왈(그림 1-D), 조천-함덕꽃자



<그림 1> 제주도 내 꽃자왈의 분포

자료 : 송시태, 2000: 20



<사진 1> 선흘꽃자왈 내 수목경관

왈(그림 1-C), 애월꽃자왈(그림 1-B) 및 한경-안덕꽃자왈(그림 1-A)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구좌-성산꽃자왈과 조천-함덕꽃자왈은 동부지역에, 그리고 애월꽃자왈과 한경-안덕꽃자왈은 서부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서로 대비된다. 이들 꽃자왈은 용암류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다시 구좌-성산꽃자왈은 종달-한동꽃자왈, 세화꽃자왈, 상도-하도꽃자왈 및 수산꽃자왈로 나눌 수 있으며, 조천-함덕꽃자왈은 함덕-와산꽃자왈, 조천-대흘꽃자왈, 선흘꽃자왈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한경-안덕꽃자왈은 월림-신평꽃자왈과 상창-화순꽃자왈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꽃자왈 중에서도 특히 월림-신평꽃자왈은

총 길이가 12.5km로 제주도내에서 가장 길게 확인되는 꽃자왈이다(송시태, 2000: 21-31).²⁾ 또 제주도지방기념물(제10호)인 동백동산이 위치하는 선흘꽃자왈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454m, 조천읍 선흘2리 소재)에서 흘러나온 용암류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그 규모가 거문오름에서부터 폭 1~2km를 유지하면서 북쪽으로 7km 정도의 범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제민일보, 2003, 사진 1).

3. 제주선조들의 꽃자왈 인식

현세대의 도민이 아닌, 제주도의 땅을 먼저 살다간 선조들은 꽃자왈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를 검토하는 작업은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난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쉽게 작은 길 하나를 찾아낸다면 이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먼저 살다간 제주의 선조들이 꽃자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뒤를 잇는 후세들의 인식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변 환경에 대한 사고와 인식체계는 선조로부터 후세대에게 끊임없이 학습되며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좌읍 김녕리에는 해녀들에 의해 전승되는 민요 중 '해녀 노젓는 소리'가 있다. 이 민요의 노랫말 중에는 “노가 부러지면 선흘꽃에 곧은 나무가 없을 소냐”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 노랫말을 해석해보면, 해녀들이 물질할 때 타고 나가는 배의 노가 부러지더라도, 선흘꽃자왈에 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노의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날의 해녀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물질’ 행위는 때에 따라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 먼 바다까지 타고 나가는 배의 노가 부러지더라도, 곧은 나무들이 많은 선흘꽃자왈에 들어가서 새로운 노의 재목감을 구해오는 것은 물질에 비하면 쉬운 죽 먹기라는 의미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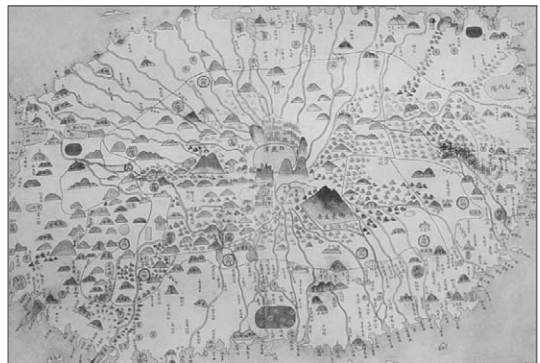
론 그 전제는 선흠꽃자왈에 언제든지 노를 만들 수 있는 크고 곧은 나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민요가 후세들에게 계속 학습되며 전승되는 문화의 산물이라면, 노랫말을 통해서도 먼저 살다간 선조들의 꽃자왈 인식체계의 일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는 제주목(濟州牧)의 산천(山川)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짐녕곶(金寧峯, 김녕곶, 제주성 동쪽 55리에 위치, 둘레 50여리), 고마곶(尙馬藪, 제주성 동쪽 79리에 위치, 둘레 20리), 개리모살곶(介里沙藪, 제주성 서쪽 75리에 위치), 켓드르곶(怪叱坪藪, 제주성 동남쪽에 23리에 위치), 맞가리곶(末叱加里藪, 제주성 동쪽 31리에 위치) 등의 꽃자왈 관련 지명이 등장한다. 또 같은 책에 정의현(旌義縣)의 산천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한다리곶(大橋藪, 정의현 동쪽 17리에 위치)과 한곶(大藪, 정의현 남쪽 4리에 위치)이 등장한다. 이들 지명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꽃자왈이거나 꽃자왈 주변에 위치하는 숲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의 꽃자왈을 의미하거나 그 주변에 위치하는 숲을 의미하는 지명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뿐만 아니라,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를 비롯한 『남환박물관(南宦博物)』(이형상, 1704년),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이원조, 19C 중반) 등 여러 종류의 탐라지에도 등장한다. 이와 같이 탐라나 제주를 기록한 여러 고문헌에 꽃자왈이나 그 주변 숲 지명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일면 꽃자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정도를 반영해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³⁾

<그림 2>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년) 내의 「한라장축(漢拏壯囑)」이라 명명된 제주 고지도이다. 이 고지도에도 꽃자왈을 시사하는 지명과 구체적인 지역이 표시되어 나타난다. 먼저 지금의 조천읍 조천·선흘·와흘·교래리, 구좌읍 송당·세화리, 성산읍 수산리 등 주변지역이 여러 오름들과 함께 한라산 방향에서부터 해안 저지대까지 거대한 숲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마을이 나타나는 곳은 말하자면, 조천-함덕꽃자왈과 구좌-성산꽃자왈 지역



<그림 2> 「한라장축」에 표현된 꽃자왈



<그림 3> 「해동지도」에 표현된 꽃자왈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 내에 꽃자왈과 관련되는 지명을 살펴보면, 저목수(楮木藪, 닥남곶, 제주시 회천동), 우수(筍藪, 우진곶, 조천읍 선흘2리), 고마수(尙馬藪, 고마곶 또는 고막곶, 구좌읍 종달리)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지점에 숲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림읍 금야리, 한경면 저지·조수리, 안덕면 덕수·동광·서광·광평리 등지에도 주변의 여러 오름과 더불어 검은 숲이 대상(帶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말하자면, 한경-안덕꽃자왈 지역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은 『해동지도(海東地圖)』내의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1750년경)인데, 이 고지도에서도 꽃자왈과 관련된 여러 지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조천읍 선흘2리의 우장수(筍長藪, 우진곶)를 비롯하여 구좌읍의 저목수(닥남곶), 김녕수(짐녕곶), 묘수(猫藪, 켓드르곶, 구좌읍 한동리) 및 고마수(고막

곳) 등의 지명이 등장한다.

이처럼 여러 고지도에 곳자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명을 표현하거나 또는 커다란 숲(곳자왈)을 연결된 형태로 표현한 것은 비록 관(官)에서 제작된 특별한 용도의 (고)지도라고는 하나, 제작과정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일정한 지리적 정보가 밑바탕이 되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원을 취득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자왈의 존재를 표현해야만, 관에서 행하는 목마장 경영이나 각종 자연자원을 특산물로 수집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마장 경영과 같은 국가적 대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농경지외의 피해나 삼림으로 인한 우마의 손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곳자왈과 같은 큰 숲의 존재는 평소 현지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리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4. 곳자왈의 이용

제주도민들의 곳자왈 이용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곳자왈과 마을과의 거리적인 요인을 근간으로 연간 이용횟수나 이용실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곳자왈을 끼고 있는 해안마을이나 중산간마을의 주민들은 연간 이용횟수가 당연히 많아지고 동시에 다양한 이용실태를 취하는 데 반해, 곳자왈을 끼고 있지 않은 해안마을이나 중산간마을 주민들은 1년 중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이용하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이용실태도 비교적 단순한 특징을 띤다.

이러한 배경은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연안바다를 이용하는 차이와도 견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배경에 두고, 제주도민들의 곳자왈의 이용적 차이에 감안하여 세 가지 이용실태로 구분·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들 세 가지 이용실태 중 소극적 이용과 적극적 이용은 제주도민들이 주로 자연에 의지하던 바가 크던 시절, 즉 전

통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인 1970년대 이전의 이용실태로 볼 수 있으며, 파괴적 이용실태는 1980년대로 돌입하면서 개발의 회오리가 휘몰아치기 시작한 이후의 이용실태를 전제로 구분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본고에서 강조하는 곳자왈의 소극적 이용, 적극적 이용 및 파괴적 이용을 구분하는 근거는 곳자왈에 대한 충격(impact) 정도, 곳자왈 내의 자원 활용도, 이용주체의 성격(개별적 또는 집단적, 생업적 또는 기업적), 이용하는 곳자왈의 면적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자왈 이용에 대한 배경에는 과거적 시점과 현재적 시점이 깔려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1) 1차적 이용 : 소극적 이용

곳자왈의 1차적 이용(소극적 이용)은 전통적 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포함된다.⁴⁾ 먼저 곳자왈의 1차적 이용실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던 과거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이전 제주도의 일반 가정생활은 어떠했을까. 단 한시라도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주시나 서귀읍(서귀포시는 1981년 7월 1일로 승격)을 비롯한 일부 도시적 생활을 유지하던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생활자원(生活資源)을 자연으로부터 획득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농어촌 지역이 도시적 생활을 영위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밟아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곳자왈을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행하는 1차적 이용은 가장 초보적이고 친환경적인 활동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늘 사용하는 땀감을 비롯하여 우마(牛馬) 사료용 꼴, 농사용 도구와 어로용 도구 등 집안의 일상용품(정낭, 대문, 정지문, 마룻바닥, 남방아, 절구 공이 등)이나 농어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재료(쟁기, 따비, 뗏목 및 배 수리용, 노, 자리돔 잡이용 사들 등)의 확보, 그리고 먹거리용 산나물(고사리, 두릅, 양

하, 달래, 으름 등)이나 약용식물(구기자, 오미자, 칩, 하늘타리 등) 등의 채취 활동이다. 말하자면, 제주도 민들이 자연(꽃자왈)에 의존하지만 자연을 손상시키는 강도는 극히 미미한 이용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한 이용사례 외에도 그 수와 행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앞서 열거한 자원들은 마을의 위치나 시기에 따라 꽃자왈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의 해안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의 들녘이라면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이들 자원들이 제주도라면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는 것이다. 꽃자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재료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꽃자왈이 지니는 특별한 환경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몇 가지 이용사례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전통적인 제주도의 일상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쌀감을 구하는 일이다. 하루 세 끼의 식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겨울철 온돌(굴뚝)용 쌀감과 우마를 기르는 집안에서는 간혹 우마의 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량의 쌀감이 필요했다. 그래서 각 집안마다 항상 쌀감 마련에 고심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고사리 손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쌀감용 솔방울이나 솔잎, 혹은 말라죽은 나뭇가지나 썩은 나무뿌리를 주우러 가야만 했다(정광중, 2006: 91-94).

그런데 해안마을에서는 해안변이나 가까운 들판에 위치한 야산 혹은 임야로 쌀감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산간마을에서는 주로 인근에 위치한 임야는 물론이고 오름 주변이나 꽃자왈로 들어가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⁵⁾ 그래서 해안마을에서도 겨울채비용 장작이나 집안의 대소사(大小事)를 위한 특별 용도의 쌀감이 필요할 때면, 집안의 어른들은 도시락까지 준비하여 이른 새벽부터 중산간 지역의 숲 속이나 꽃자왈로 들어가 작업을 하곤 했다.

집안의 대소사 시에는 특별히 많은 쌀감이 필요했



<사진 2> 장작시장

자료: 제주도(1996: 137)

다.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단 만들어 놓은 음식을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쌀감은 지속적으로 소비해야만 한다. 특히, 집안 대소사 시에는 쌀감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장작(薪炭)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장작은 필요시에 상품과 같이 판매되기도 했다(사진 2).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의 장작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고, 중산간 지역의 임야나 꽃자왈에서 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표 1>은 1929년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당시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를 종류별로 추산(推算)하여 정리한 것이다(善生永助, 1929: 135, 우당도서관 역, 2002: 110). 이 자료는 당시의 시대상(時代相)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표 1>에 제시된 많은 양의 장작이나 목탄 등은 중

<표 1> 1929년경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종류와 추정 소비량

취사용 및 우마의 사료 풀이기용		온 돌 용	
연료 종류	추정 소비량(貫)	연료 종류	추정 소비량(貫)
솔 잎	500,000	솔 잎	500,000
장 작	15,000,000	장 작	800,000
잡 초	5,000,000	잡 초	1,000,000
곡류짚/깎지	10,000,000	곡류 짚	2,000,000
석탄/연탄	2,000	낙엽	1,000,000
낙엽	1,000,000	말린 말뚝	소비량 미상
목탄	400,000	-	-
합계	31,902,000	합계	5,300,000

자료: 善生永助, 1929, 調査資料 第二十九輯 生活實態調査(其二) 濟州島, 朝鮮總督府, 134-135.



<사진 3> 고사리 꺾기(애월꽃자왈 초입부)



<사진 4> 두릅(월림-신평꽃자왈 초입부)

산간 지역이나 꽃자왈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꽃자왈에서는 각종 산나물이나 약용식물 혹은 야생열매를 채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가 온 후, 꽃자왈의 여러 곳에는 일시적으로 물웅덩이를 형성하거나 습기를 머금는 장소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장소에는 식용 고사리, 고비, 양하 혹은 달래 등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사진 3, 사진 4). 봄철에 뜯어온 이들 산나물은 가정마다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식탁에 오르곤 했다. 특히, 이들 산나물은 많은 양을 채취했다가 오일시장 등에서 팔거나 집안의 제사 등에도 긴요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꽃자왈에는 영지버섯이나 각종 버섯류, 칩, 오가피, 더덕, 하눌타리, 인동초 등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들

도 많이 자생한다. 이것들은 해안지역의 임야나 일부 특정장소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기는 하나, 꽃자왈 내에서도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장소는 채취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크고 굵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꽃자왈은 이들 외에도 계절에 따라 찔레순, 청미래덩굴순, 두릅나무순 등 식물의 줄기와 순, 그리고 모람, 맥문동 열매, 상동나무 열매, 산딸기, 으름, 보리수 열매, 오미자, 구기자, 시로미 등 상당히 많은 식물의 열매를 거두어들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꽃자왈은 비록 대대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이거나 숲 지역이기는 하나,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은 우마의 먹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우거진 초입부의 수림(樹林) 지구는 가축들이

풍우설(風雨雪)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담당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꽃자왈은 방목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강만익, 2001: 63). 그러나 종종 풀을 뜯던 우마들이 꽃자왈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후에 길을 잃고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꽃자왈의 1차적 이용은 제주도민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개별 가구나 혹은 개인 단위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꽃자왈이나 그 주변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지극히 미미한 형태의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꽃자왈의 1차적 이용은 가장 초보적인 이용이자 소극적인 이용이며, 가구단위나 개인 단위로 주로 이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꽃자왈 내의 자원 활용도도 비교적 저급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차적 이용: 적극적 이용

꽃자왈의 2차적 이용은 1차적 이용에 비하면, 다소 진전된 이용사례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꽃자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형태이자, 아울러 가구 단위나 개인 단위가 아닌 복수적 혹은 집단적 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꽃자왈 내의 자원 활용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중급 수준의 이용실태라 지적할 수 있다.

2차적 이용실태의 사례로서는 숲 굽기, 옹기제작, 화전경영, 피난장소로서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꽃자왈의 2차적 이용도 앞서 정리한 1차적 이용과 더불어 1960년대 이전에 대부분 종식된 이용형태로서, 지금은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제주도민들에게도 희미한 기억으로 존재할 뿐이다. 더불어 2차적 이용의 중심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마을이거나 꽃자왈 주변부에 위치하는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1차적 이용과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두 열거하여 논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사례 즉, 숲 굽기와 화전경영, 및 제주4·3사건 당시 피신지로서의 이용실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숲 굽기는 앞서 제시한 <표 1>에서도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듯이, 꽃자왈에서 제주도민들이 활발하게 전개한 이용실태로 주목할 수 있다. 숲 굽기 작업이 꽃자왈 내에서 활발하게 행해진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숲을 만드는데 중요한 자원인 목재(특히 참나무류)를 꽃자왈 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숲을 굽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리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숲을 굽는 숲가마⁷⁾는 재료나 연료 취득의 특성상 꽃자왈 내에 축조하는 것이 중요했다. 즉 숲의 원료가 되는 참나뭇과의 수종(종가시나무·졸참나무·개가시나무 등)을 비롯하여 구실잣밤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많이 자생하는 꽃자왈이 숲가마를 만드는데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선홍, 교래, 함덕, 대흥, 신평, 저지, 청수, 상창, 서광, 상도, 세화리 등 꽃자왈을 끼고 있는 마을이나 그 주변 마을은 숲 굽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들이다(정광중, 2010). 실제로 이들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해보면, 과거에 숲 굽기 작업에 대한 내용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처럼 꽃자왈을 주변에 끼고 있는 마을주민들이 숲 굽기를 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와 배경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전통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에 제주도에 서의 연료 취득은 육지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으며, 따라서 모든 가정에서는 1년을 통틀어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도 숲은 집안의 대소사나 특별한 날에만 활용하는 고급 연료에 속하였다. 숲을 전문적으로 굽는 주민들은 숲 만들기 자체가 생계유지의 주요 수단이기도 했으며, 일단 확보한 숲의 대부분은 해안마을이나 오일 시장을 통해 판매하든지 혹은 보리와 조, 콩, 팥 등 다양한 농산물과 물물 교환하였다.

제주도의 숲가마는 육지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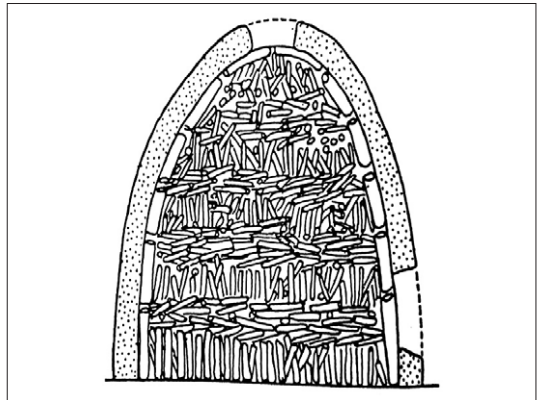
<사진 5> 선흘곶자왓 내 숯가마(숯굽게) 1



<사진 6> 선흘곶자왓 내 숯가마(숯굽게) 2

규모가 작으며, 외부형태는 지면에서 현무암으로 둥글게 쌓아올린 아치형을 취하며 나무재료를 넣고 숯을 꺼내는 출입구와 천정 혹은 출입구 반대편 하단에 배연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가마 내부는 고운 진흙으로 매끈하게 발라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안하였다(사진 5, 그림 4). 설명으로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숯가마를 축조하는 데는 나름대로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야 하고, 또 돌과 고운 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축조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때에 따라서는 가마 내부에 바를 고운 흙과 돌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구한 후 가마를 축조하는 지점까지 손수 날라야 하는 번거로움도 뒤따랐다.

최근에 필자를 포함한 3명의 조사자들은 선흘곶자왓의 현장답사를 통해 2기의 숯가마를 발견했다.⁸⁾ 이들 숯가마 2기는 아직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다(사진 5, 사진 6). 이들 중 1기는 목재를 넣고 빼내는 출입구와 상층부 일부가 허물어진 상태이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온전한 것이고, 또 다른 1기는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2기 모두는 내부에 몇 개의 돌맹이가 흩어져있을 뿐, 아직은 내부구조도 말끔하여 붕괴의 조짐도 없어보였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숯가마의 상부나 주변에 자생하는 나무들이다. 이들은 숯 굽기의 기능을 다한 지, 50년 이상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숯가마의 상



<그림 4> 숯굽게의 목재 쌓기(泉 靖一, 1971)

부와 인접부위에 자생하며, 숯가마의 붕괴를 부추기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했다.

한편, 숯 굽기 작업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2~3명, 4~5명, 또는 1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선흘곶자왓에서 숯 굽기에 동참했던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숯 100가마를 구워내려면 5명이 15일 동안 나무를 해서 1주일을 구어야 했다' 고 한다(제민일보곶자왓특별취재반, 2004: 26). 그리고 숯을 만들기 위해서는 숯가마에서 약 24시간 정도 나무를 태운 다음 가마내부에서 열기를 식히는데 약 24~48시간 정도를 기다려야만 한다. 숯을 굽는 사람들은 숯가마 1기당 2~3명이 작업을 행한 후에 먹동구미(맹탕이)를 단위로 서로의 몫을 나누었다(송시태 외, 2007: 141-



〈사진 7〉 종달 - 한동꽃자왈 내의 화전 흔적



〈사진 8〉 수산꽃자왈 내의 화전 흔적

142). 이처럼 숲 굽기 작업에서는 협업체제가 필수 불가결했다.

꽃자왈에서의 숲 굽기 작업은 많은 양의 목재를 필요로 했다. 숲의 원료인 수종은 나뭇결이 단단한 양질의 것을 찾아야 하고, 또 여러 명이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몫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더 더욱 그랬다. 더불어 일주일 이상이나 꽃자왈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취사와 함께 추운 한기를 피하는 데도 많은 땀값이 필요했다.

꽃자왈에서 화전(火田)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화전경영의 흔적을 적잖게 확인할 수 있다(사진 7, 사진 8). 제주도의 화전은 잡목지에 불을 넣고 나무를 태운 다음, 타고 남은 재(灰)를 이용하여 메밀을 비롯하여 보리, 조, 피, 콩 등을 심어 수확하는 형태이다. 화전경영의 단점은 지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매년 농작물을 심어 수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화전경영은 보통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장소선정-삼림제거-불넣기(火入)-재배-휴경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진관훈, 2006: 202). 따라서 제주도의 화전경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이다. 장소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이외로 많다. 꽃자왈 내에서도 키가 큰 수목들이 우거지지 않은, 작은 잡목들이 많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경작지에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한 후 집까지의 이동거리를 고려하면, 꽃자왈 내에서도 이동에 편리한 숲길이나 소로(小路)가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만 한다. 물론 이들 숲길이나 소로는 사람들의 화전경영으로 인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결국 꽃자왈에서도 화전경영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삼림이 우거진 중심부가 아닌, 초입부나 키 작은 잡목들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주변부에서 행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꽃자왈 중심부에는 용암류가 서로 엉켜 있는 바위들이 많아 화전경영에는 적당치 않았다. 이러한 사실 자체는 가능한 한 노동력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꽃자왈에서 화전경영을 했던 교래리의 한 주민의 화전경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⁹⁾

“꽃자왈지대 인근의 주민들은 예로부터 산전(山田)을 일구며 살았다. 꽃자왈지역과 목장의 경계 주변일대(저자 주: 조천-대흘꽃자왈)에서는 일제시대까지 오랫동안 경작지로 활용돼 왔고, 꽃자왈 중심지역은 워낙 바위투성이라 밭을 일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꽃자왈 주변에서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밭을 일굴 수 있었다. 따비 등을 이용해 돌을 일구고 가시덤불을 태워버린 다음 팔이나 피 같은 작물을 심었다. 그때는 거름이나 비료 같은 것을 쓸 여유가 없었던 때였지만, 오랫동안 나뭇잎이 쌓인 곳은 그나마 곡식을 키울 만 했다. 한 2~3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다시

장소를 옮겨 새로운 밭을 일궈야 했다.”(제민일보꽃자왈특별취재반, 2004: 87)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화전경영은 꽃자왈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점,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까지도 화전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 꽃자왈의 중심부보다는 키 작은 나무들이 자생하는 초입부나 큰 용암 바위들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팔과 피 등의 농작물을 심으며 2~3년 단위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농사를 지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화전경영 사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항상 농사를 짓기 위한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꽃자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에 두면, 꽃자왈에서의 화전경영은 집단적이며 자원약탈이나 자연손상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안덕면 화순리에는 구진로쿠화전, 구시화전 및 율래화전이라는 지명이 있다(화순리, 2001: 162). 이러한 사실은 화순리 주민들도 오래전부터 꽃자왈에서 화전경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화순리 내의 화전지명들이 위치하는 지구는 상창-화순꽃자왈의 남쪽지구에 해당된다.

이어서 제주4·3사건 당시 꽃자왈을 이용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¹⁰⁾ 꽃자왈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숲, 오름, 궤(작은 동굴), 용암동굴, 계곡, 습지 등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꽃자왈 그 자체는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몸을 숨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도 꽃자왈 내에 위치하는 궤와 동굴은 주변지역의 주민들도 정확히 몇 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정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1948년을 전후한 시점이라면, 그것들의 정확한 수는 더 더욱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난장소로서 꽃자왈의 이용사례는 한경-안덕꽃자왈 중 율림-신평꽃자왈과 상창-화순꽃자왈 사이에 자리 잡은 동광리의 사례가 주목된다. 동광리(東廣

리)는 안덕면 북쪽에 위치하는 마을로 제주4·3사건 발생 당시에는 삼밭구석(麻田洞, 당시 45호), 무등이왓(舞童洞, 당시 130여 호), 조수궤(당시 10여 호), 간장리(당시 10여 호) 및 사장밭(당시 3호) 등 5개의 자연 마을이 있었다(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b: 123). 마을의 북서쪽으로는 돌오름(도너리오름, 439.6m)을 기점으로 하여 율림-신평꽃자왈이 전개되고, 동남쪽으로는 상창-화순꽃자왈이 전개된다. 이와 같은 자연 환경적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제주4·3사건 당시 난리를 피해 꽃자왈로 피신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였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보자.

간장리의 10여 호를 불태운 군인들은 간장리 서쪽에 있는 삼밭구석을 둘러보지도 않고 내려갔으므로 삼밭구석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삼밭구석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마을을 떠나 도너리오름(돌오름) 근처의 꽃자왈 속에 숨어 있었다. 동광리의 맨 위쪽에 있던 마을인 조수궤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인근에 있는 터진궤에 숨었다. 터진궤는 40여 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굴이었는데, 높은 지형에 자리하고 있긴 하였지만 입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그 터진궤에는 조수궤 사람들만이 아닌 무등이왓 사람들도 와 있었다(강태권, 1998: 59).

큰넓궤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막연해졌다. 게다가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중략) 큰넓궤 근처의 꽃자왈에서 희생된 사람은 임흥선(林興善, 당시 67세) 혼자였다고 한다. 꽃자왈에서 죽어 그를 묻을 수 없으니 눈 위에서 굶주린 개들이 시신을 뜯어먹었다는 얘기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떠돌았으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넓궤를 나와서 돌오름 근처의 초기밭(표고버섯 재배지)으로 갔다(강태권, 1998: 94-95).

위의 두 인용문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동광리 주민들은 제주4·3사건 당시 화(禍)를 면하기 위하여 꽃자왈을 이용하고 있었다. 인용문에서 등장하



<사진 9> 다랑쉬굴(피난 장소)

는 ‘도너리옴’과 ‘큰넓궤’는 크게 보면 월림-신평 꽃자왈에 속하며, ‘터진궤’는 상창-화순꽃자왈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큰넓궤’에는 동광리 주민들 120여 명이 50~60일 동안이나 숨어 지내던 작은 용암동굴로서, 발굴 시점에서는 사건 당시 사용했던 생활용기들이 동굴 내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고 전해진다(김동만, 1999).

<사진 9>와 <사진 10>에 보이는 다랑쉬굴과 대섭이굴도 선홍꽃자왈 내에 위치하는 소형 용암동굴로서 제주4·3사건 당시 피신처로 사용했던 장소이다. 특히 다랑쉬굴은 구좌읍 세화리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동굴(약 30m)인데, 이곳에서는 지역주민들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한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92년 발굴당시, 동굴 내부에서는 11구의 유골과 함께 향아리, 가마솥, 질그릇, 물허벅, 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 농기구가 발견되었다.¹¹⁾ 대섭이굴은 선홍리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숨기는 장소로 자주 이용하였지만, 입구가 넓은 용암동굴이어서 장기간 피신하는 장소로서는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선홍꽃자왈 내에 위치하는 다른 용암동굴인 도톨굴이나 목시물굴 등에서는 대규모 희생이 뒤따랐지만, 대섭이굴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a: 427).

이처럼 꽃자왈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빼아픈



<사진 10> 대섭이굴(피난 장소)

추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제주4·3사건 당시 꽃자왈이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를 마을주민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꽃자왈을 끼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위급 시에 가족들을 데리고 수풀이 우거진 꽃자왈로 피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으며, 결국 꽃자왈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안식처로서 소중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배경을 인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숲 급기, 화전경영 및 피난장소로서의 이용 등 세 가지 시각에서 정리한 꽃자왈의 2차적 이용실태는 1차적 이용에 비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집단적이며, 이용시간이나 기간도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점이다. 더불어 이용횟수도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에 걸쳐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3) 3차적 이용: 파괴적 이용

꽃자왈의 3차적 이용은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이용실태로서 꽃자왈을 반영구적으로 이용하면서, 꽃자왈이 지니는 본래의 속성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파괴적인 이용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3차적 이용의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도로건설, 송전탑 건설, 골프장 건설, 대규모 건물의 건축, 골재 채취장 건설 등



<사진 11> 조천 - 함덕곶자왈을 가로지르는 지방도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파괴적인 이용은 현시점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례로 부각된다.

가장 먼저 도로건설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사진 11>은 조천 - 함덕곶자왈을 가로지르며 제주시에서 표선리까지 연결되는 1137번 지방도(번영로)이다. 이 1137번 지방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제주시 중심부와 동남부 지역의 물류수송과 함께 제주도민들의 지역이동에 있어 주요 교통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곶자왈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험악한 물골을 드러내고 있다. 곶자왈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교래곶자왈을 가로지르는 1118번 지방도(남조로), 상창 - 화순 곶자왈을 가로지르는 1135번 지방도(번영로) 등 제주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들 지방도처럼 도로는 긴 선(線)의 형태를 유지하며 일정지역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도로건설로 인해 식물 자생지의 파괴는 물론, 동물들의 왕래도 단절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나타날 것이다.

<사진 12>는 세화곶자왈에 설치된 송전탑이다. 다량쉬오름과 아끈다랑쉬오름을 배경으로 매우 빼어난 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은 여



<사진 12> 세화곶자왈에 설치된 송전탑

지없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연결되어 있다. 송전탑은 도로나 건축물, 골프장 등과 같이 특정장소에 대규모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곶자왈을 가로지르며 송전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한 번 더 <사진 12>에 주목해 보자. 곶자왈 주변은 모두 오름과 삼나무림, 잡목림, 그리고 일부 농경지 등이 전개되며 중산간 지역의 빼어난 경관미를 자랑하고 있다. 바로 이런 지역에 인공 구조물인 송전탑이 버젓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한눈에 보아도 송전탑은 이질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더불어 파괴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미 송전탑 건설문제는 제주사회의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며, 제주환경운동연합이나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지역의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중화(地中化)를 거론하며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곶자왈 내의 송전탑 시설은 오히려 증가할 뿐이었지, 철거하거나 지중화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곶자왈 내의 골프장 건설문제는 제주지역사회를 완전히 뒤흔드는 현안문제로 부각되어 등장한다. 골프장 건설은 곶자왈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전체를 파괴하며 제주도민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행위로 부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곶자왈의 생태계 보전등급이 3등급으로 지정

<표 2> 제주도내 골프장 현황(2009년 12월 말 현재)

구분 업종별	업소수 (개소)	면적 (m ²)	시설 규모	보험가입 업소수	지도자 배치(명)			
					계	1급	2급	3급
합계	39	32,363,189	홀수 : 690홀	39	30	-	1	29
회원제	25	27,531,848	홀수 : 567홀	25	29	-	1	28
정규대중	-	-	홀수 : -홀	-	-	-	-	-
일반대중	14	4,831,341	홀수 : 123홀	14	1	-	-	1
간이	-	-	홀수 : -홀	-	-	-	-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자료, 최종 검색일: 2012년 5월 16일.



<사진 13> 율림 - 신평꽃자왈에 입지한 골프장

자료 : Daum 항공사진

된 곳이 많아, 개발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에 꽃자왈을 포함하여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는 골프장 수는 가히 폭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운영 중에 있거나 향후 운영할 예정인 것들을 포함한 골프장 수는 <표 2>에서 보듯이 총 39개소에 이르며, 이들 중 2012년 5월 현재 운영 중인 것은 28개소, 승인된 것은 3개소, 절차 이행 중인 것이 2개소, 예정자가 지정된 곳이 1개소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중에서 꽃자왈 내에 건설된 것만도 10여개 소에 이른다(사진 13).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외에 앞으로 꽃자왈이나 중산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은 몇 개가 더 있다. 이와 같이, 몇 년 후에는 제주도가 골프장 천국이라는 기가 막힌 명예를 짊어지게 될 운명에 놓여있다.

골프장 건설은 단순히 꽃자왈의 파괴에 따른 동물

서식지와 식물 자생지의 파괴나 중산간 지역의 경관적 가치의 저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골프장은 부수적으로 도로 건설이나 관련 부대시설(연습장, 골프텔 등)의 건축, 다량의 농약사용 등으로, 식수원의 오염을 비롯한 공기정화기능의 저하, 도시부와 산간부의 완충기능의 저하, 조망권 침해 등 두고두고 제주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뢰로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꽃자왈이나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결국, 골프장 건설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반비례한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때, 꽃자왈을 파괴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골프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송시태 외, 2007: 173).

최근에 이르러 꽃자왈 내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사진 14> 선흘곶자왈에 입지한 드라마 촬영장
 자료 : Daum 항공사진

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우선 면적이 작은 건축물은 차치하더라도, 대규모의 면적을 뿔내며 조성되는 사례로서, 파크써더랜드(태왕사신기 촬영지, 선흘곶자왈의 일부), 돌문화공원(함덕 - 와산곶자왈의 일부),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상창 - 화순곶자왈의 일부) 등이다(사진 14). 이들 대규모 교육·위락시설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추진(허가·승인·개발)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곶자왈의 3차적 이용은 한마디로 곶자왈을 원상복귀 불능의 상태로 만들며, 또한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이용한다는 관점을 고려해 볼 때 파괴적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파괴적 이용은 관(官)이 허가·승인하고 또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주도적 파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곶자왈의 파괴적 이용 실태는 현재적 시점에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곶자왈이 더 파괴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5. 결론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 제주도의 동서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곶자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주도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인접한 곶자왈을 도립 공원화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포돼 있지만, 곶자왈을 도립 공원화 한다는 계획은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졌고, 동시에 도민들이나 행정기관이 곶자왈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때, 곶자왈은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파괴적인 이용으로 치달아서는 더 더욱 곤란하다. 그 배경은 분명하다. 곶자왈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중한 보배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세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미래형 자연자원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곶자왈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중요한 논점은 곶자왈을 과거 선조들의 이용하는 방식인 1차적 이용(소극적 이용)과 2차적 이용(적극적 이용), 그리고 현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이용하는 방식인 3차적 이용(파괴적 이용)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제주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강도에 현격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강조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다. 곶자왈의 이용방식은 3차적 이용인 파괴적 이용보다는 2차적 이용의 적극적 이용으로, 그리고 1차적 이용의 소극적 이용으로 진전되는 과정이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소극적 이용방식인 1차적 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제주도의 꽃자왈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과거를 살다간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전통적인 꽃자왈의 이용 실태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꽃자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덜 파괴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정답을 가려내야만 한다.

■ 주

- 1) 꽃자왈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광중의 연구(2004, “꽃자왈과 제주민의 삶” 제주교대 논문집 33, 41-65)를 참조하길 바라며, 본고에서의 개념 정리도 같은 연구(43-45)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을 밝힌다.
-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민일보가 특별 기획물로 다룬 ‘꽃자왈 대탐사’(2002년 12월 31일자) 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꽃자왈 대탐사: 프롤로그-꽃자왈은 무엇인가).
- 3) 과거의 지리적 지식과 정보를 기록한 탐라(제주)의 ‘지리지’에서는 꽃자왈 관련 지명이 다수 등장한다. 그러나 후대에 이어지는 지리지의 내용은 앞선 시대의 지리지의 내용(꽃자왈 관련 지명)을 그대로 베끼는 사례도 많다. 또 한편에서는 누락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꽃자왈 관련 지명도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4) 여기의 1차적(소극적) 이용은 필자의 연구(2004, “꽃자왈과 제주민의 삶” 제주교대논문집 33, 41-65)에서 53-57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5) 꽃자왈 안이나 주변에는 꽃자왈의 지형과 지질을 형성하는데 일등공신인 여러 오름(기생화산)이 포함된다.
- 6) 장작은 ‘바리(駟)’라는 단위로 팔고 사는데, 대개 1바리는 장작 30개를 가리킨다. 그리고 ‘바리’는 마소한 마리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1바리에서 장작의 규격은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한 사례를 제시하면 굵기는 어른의 팔뚝 정도이고 길이는 1자 반(약 45cm) 정도이다. 아울러 장작의 판매 사례를 보면, 1974년 애월면 신엄리에서는 1바리 당 3,000원에 판매했다는 제보를 접할 수 있었다(2004년 2월 15일(일), 성봉추(71세, 여)씨와의 인터뷰 결과임).
- 7) 숯을 구웠던 현지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통 ‘숯굽’ 혹은 ‘숯굽궐’라 부른다.
- 8) 이들 숯가마(굽궐)는 2012년 4월 28일(토), 필자를 포함한 강창화 박사(제주고고학연구소 부소장)와 현문필 선생(제주도문화재전문위원) 등 3명이 선홍꽃자왈을 5일간 조사한 끝에 발견한 것이다.
- 9) 인용문 중에서도 저자가 필요한 부분만을 연결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 10) 여기의 제주4·3사건 당시 꽃자왈의 이용실태는 필자의 연구(2004, “꽃자왈과 제주민의 삶”, 제주교대논문집 33, 41-65)에서 57-61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11) 다랑쉬굴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 내용에 따른 것이며, 안내판에는 오영호 시조시인의 ‘다랑쉬굴’이라는 시가 함께 쓰여 있다.

■ 참고문헌

- 강만익, 2001,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강태권, 1998, “동광리-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궐”(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제주4·3 유적지 기행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59-123.
- 김동만, 1999, “4·3 유적, 유물의 현황과 그 보존대책”(제주 4·3 연구소, 영상으로 보는 제주 역사 유적-제주 역사 유적의 보존, 복원과 그 대책-), 66-70.
- 김효철, 2011, “제주의 허파 꽃자왈”(꽃자왈공유화재단, 2011 꽃자왈 생태교육교사 강의보고서), 91-124.
- 박기화·안주성·기원서·박원배, 2006, 제주도 지질 여행(증보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도발 전연구원.
- 송성대, 2000, “지리적 기초”, 북제주군지(상), 북제주군, 93-101.
- 송시태·고기원·윤선, 1996, “제주도 지하수의 함양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습곡구조와 꽃자왈 지대에 관한 연구(I)”(대한지하수환경학회 1996년도 학술발표회 자료집), 68-69.
- 송시태,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시태·김효청·김대신·류성필·좌승훈, 2007, 제주의 꽃자왈, 국립민속박물관.
- 우당도서관 역(善生永助 著), 2002, 조사자료 제29집

- 생활실태조사.
- 정광중, 2004, “곶자왈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33, 41-65.
- 정광중, 2006, “제주여성들의 옥외 노동공간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1, 67-123.
- 정광중 · 김은석, 2008, “북촌리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따른 돌문화 관련자원의 형성과 배경”,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8(1), 한국사진지리학회, 7-26.
- 정광중, 2010, 9. 16, 제주일보 시론: ‘제주 솟가마를 아십니까?’.
- 정광중, 2011, “제주도 대정읍성(大靜邑城)의 지리적 환경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2), 한국사진지리학회, 43-61.
- 정광중, 2011, “제주도 농어촌 지역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시론적 연구-신엄마을을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한국사진지리학회, 153-170.
- 정광중, 2011, “제주시 용담동-도두동 해안도로변 생활문화유적의 잔존실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 한국사진지리학회, 53-68.
- 제민일보곶자왈특별취재반, 2004, 제주의 허파 곶자왈, 도서출판 아트21.
- 제주도, 1996, 제주 100년(도 승격 50주년 기념 사진집), 제주도.
- 제주도, 1997,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 제주도 · 제주4 · 3연구소, 2003a, 제주 4 · 3 유적 I (제주시 ·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 제주도 · 제주4 · 3연구소, 2003b, 제주 4 · 3 유적 II (서귀포시 · 남제주군),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어사전(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
- 진관훈, 2006, “한라산의 화전농업과 화전민”(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문지리), 189-214.
- 화순리, 2001, 화순리지.
- 泉 靖一, 1971, 濟州島, 東京大學出版部.
- 善生永助, 1929, 調査資料 第二十九輯 生活實態調査 (其二) 濟州島, 朝鮮總督府.
- <http://www.daum.net>
- <http://www.jejustrust.net> 

투고일 2012. 04. 08
수정일 2012. 04. 30
확정일 2012. 05. 11